



VIENNA ACOUSTICS

MAHLER

SPEAKER SYSTEM

₩13,000,000

- 구성: 3웨이 5스피커 ●인클로저: 베이시리플렉스형 ●사용유닛: 우퍼 25cm 콘형×2, 스쿼커 17.8cm 콘형×2, 트위터 3cm 돔형
- 재생주파수대역: 22Hz~25kHz ●임피던스: 6Ω ●출력음압레벨: 90dB
- 크기: W21.8×H130×D46.5cm ●무게: 68kg
- 수입원: 샘에너지(780-0905, saemcom@nuri.net)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걸작  
정확하고 웅장한 울림이 압권**

비엔나 어쿠스틱스는 11년 전에 출범한 회사로, 제품의 종류는 비교적 적지만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말러'를 내면서 그 세계적 명성은 확고해졌다고 본다. 자매품인 '모차르트'나 '베토벤', '하이든'이 이미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데, 특히 베토벤은 그 크기 않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처럼 웅장하고 소화해내지 못할 음악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까지 한 평론가는 말했다(본지 28호). 그런데 드디어 그 베토벤보다 더 큰 말러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말러도 그 크기는 그저 약간 큰 방(홀)이면 적당할 정도이며 던테크나 윌슨 오디오, 인피니티의 대형 스피커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명망있는 메이커들이 앞을 다투어 초고가의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내놓아 오디오 파일들로 하여금 희비쌍곡선을

그리게 해왔다. 환상적인 소리는 반갑지만 그 높은 가격으로 치자면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림 속의 떡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러는 우리의 손에 들어올 만한 가격대이면서 그 음질은 2배 이상 비싼 제품들에 못지 않아 앞으로 오랫동안 베스트 바이의 반열을 유지할 것이다.

이 스피커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다. 나무로 된 받침대보다 몸체의 밑을 약간 앞으로 내밀면서 몸체 전체가 뒤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폭은 20cm가 조금 넘을 정도이지만 깊이는 46.5cm나 된다. 배플의 폭이 좁기 때문에 25cm 우퍼(에톤제) 2개는 측면에 장착했다. 이처럼 우퍼를 측면에 장착하는 설계는 비엔나 어쿠스틱스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음향효과는 발군이다. 스칸스피크의 미드레인지 2개와 트위터만 보고 있노라면 어디서 저런 웅장한 소리가 나는지 신기할 정도이다. 특주품이라 하지만 다른 메이커의 유닛을 가지고 이만큼 자기 소리를 만들어낸 스피커가 또 있을까?

그 이름이 말러니까 우선 말러의 음악을 걸어보자. 웅장한 소리를 얼마나 낼 수 있을는지... 하인츠 뢰그너가 지휘한 교향곡 제6번을 CEC TL-1X에 얹고 제1악장을 들었다. 콘트라베이스를 위시하여 모든 현이 울려대는 강력한 저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나온다. 넓은 시 청실이 말러의 교향곡으로 딱찬다. dCS 엘가 컨버터와 볼더 2010 프리앰프, 그래프 GM200 OTL 파워앰프 등 최고의 기기들과 매칭했으므로 좋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한가?

그러나 매뉴얼을 보면 역시 다른 무엇보다 좋은 시스템으로 매칭할 것을 권하고 있다. 흔히 제품의 스펙과 성능을 자랑하기 일쑤이나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좋은 기기와 케이블을 맞추어 줄 것과 스피커의 위치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을 따름이다.

유카페카 사라스테가 지휘하는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교향곡 제5번도 들어본다. 펜스레 무거운 척 연주하지 않으면서도 말러의 진면목을 잘 나타내 줄 뿐만 아

니라 녹음 효과도 매우 좋은 이 CD를 나는 자주 듣는데 이 스피커는 이름처럼 작곡가 말리를 훌륭하게 연주해준다.

안 머레이와 토마스 알렌의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와 '어린이의 요술피리'에서는 성악을 정말 성악답게 들려준다. 소리가 정확할 뿐더러 이 스피커가 무엇보다 자랑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울림이라고 해야겠다. 나는 지난 6월 암스테르담에서 쿠르트 잔데를링이 지휘하는 콘서트헤보의 연주를 들었는데 이 스피커는 바로 그 홀의 깊은 맛을 들려주는 느낌이다.

집에 두고 오래 오래 듣고 싶은 말러... (배성동)

### 편안한 사운드, 안정된 밸런스 에너지감 넘치는 저역도 인상적

말러를 처음 대면한 순간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한 사운드와 안정된 밸런스가 일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구경이 큰 유닛을 사용하고 우퍼의 배치가 특이한 덕분인지 아무래도 하위 모델과는 울림의 여유감 내지 스케일감에서 많은 차이가 났다. 음질은 이른바 하이엔드 기기들에서 느껴지는



분석적인 예민함이나 첨예한 인상보다는 듣기에 자연스럽고 순한 질감이 돋보였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밋밋하나 하면 그것도 아니어서 예를 들면, 트위터와 우퍼의 상하대역이 상당히 넓고 반응도 다채롭다.

바이올린이나 소프라노의 고음역을 무난히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 질감과 표현력은 꽤 우수하다는 인상. 저역은 상당히 풍부해서 베이스의 뽀음과 에너지감이 대단하다. 단, 이 저역은 탄탄하다거나 윙광

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전체적인 테두리를 부드럽게 감싸면서 유연하게 몸으로 와닿는 듯한 울림새를 갖추고 있다. 실내악에서부터 교향곡, 성악곡,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무난하게 들려주었다. 비교적 색채감이 적고 중용적인 성향의 음이라 하겠다.

매칭에 사용된 기기는 그라프 GM200 OTL 진공관 파워, 그라프 GM13.5B 프리, CEC TL-1X 트랜스포트, dCS 엘가 DA컨버터였다. (나상운)